

# NEWS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광주 뿌리·자동차·가전 일자리 560개 창출

### ▶1면 '메가시티'서 계속

김영록 지사는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굴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됐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끈다”고 말했다.

### ▶1면 '산불재난 심각'서 계속

지난 21~23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 산불은 특수진화대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경찰·소방·군인 등 1300여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지만 큰 불길은 잡지 못했다.

화재 진화 중 진화대원이 숨지는 인명 피해와 화재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산청군 시전면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청년군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진화에 나선던 대원 1명과 공무원 1명도 연락이 두절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또 진화대원 5명과 주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이 산불로 산청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전날 대피한 데 이어, 8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까지 화재로 발생한 산림 피해는 총 3286.11ha로, 이는 축구장 약 46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지역별 피해 규모는 경북 의성 1802ha, 경남 산청 1329ha, 울산 울주 85ha, 경남 김해 70.11ha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울산, 경북, 경남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등이 이뤄진다.

### 노동부 지원사업 선정...국비 38억5000만원 확보

### 고용유지·근로환경 개선...시, 이달부터 본격추진

광주시가 올해 뿌리·자동차·가전 업종에서 56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5000만원을 확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에 시비 11억8700만원을 투입해 총 50억3700만원으로 뿌리·자동차·가전 기업 559개의 일자리와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공모 사업은 지역의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가전업종 내일 프로젝트 등 총 3개 사업이다.

먼저 3월부터 추진되는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신규 입사자를 유입하고 재직근로자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도약 장려금(연 최대 360만원), 일자리 안착 지원금(연 최대 200만원), 공동이용시설 개선(1개사 최대 9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과 2·3차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신규 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금과 복지 격차 축소를 위해 상생일자리 도약 장려금(연 최대 360만원), 상생일자리 안착 지원금(연 최대 200만원),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7500만원을 지원한다.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는 가전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일전환지원센터(근로자 구직지원, 기업홍보 및 채용지원, 취업역량 강화 지원), 가전산업 스탬프(기업 컨설팅, 가전내일 전환 지원(기술이전, 시제품, 특허, 제작자 교육훈련), 가전 마케팅 지원(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제작자 교육훈련), 가전내일 청년 특화지원(지원금, 장려금, 근로환경개선 등), 고용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사업참여 자 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시 (www.gwangju.go.kr),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 광주상공회의소(www.gjcci.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생태계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산구 고려인문화관-국회도서관 협약 광주 광산구 고려인문화관은 지난 21일 기획전시실에서 대한민국 국회도서관과 고려인 역사 유물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고려인 역사 문화 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 '쉬었음' 증가...청년 성장프로젝트 확대

### 도,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 등 지원...경제활동 촉진

전남도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성장프로젝트 참여 지자체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 준비, 진학 준비 없이 '쉬었음'으로 파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순천, 나주, 화순, 영암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대 1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후속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5주 이상 40시간), 중기(15주 120시간), 장기(25주 이상 200시간)에 걸쳐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외부 연계 활동 등이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정책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순천, 나주, 화순, 영암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대 1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후속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경험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도, 행안부 마을기업에 20곳 '전국 최다'

### 신규 8·재지정 11·최고 단계 '모두에' 1곳...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20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전국(135개)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 다음으로는 전북·경북 각 15개소, 강원 12개소 순이다.

마을기업은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단계별로 육성된다.

이 가운데 공동체성 실적이 높으면 우수 마을기업에, 기업성 실적이 높으면 모두에(燻) 마을기업으로 육성된다. 올해 전남지역 선정 마을기업은 신규 8곳, 고도화 11곳, 모두에 1곳이다.

신규 마을기업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

며, 제품 개발, 판로 지원, 전문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고도화 마을기업은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뛰어난 성과와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받아 인건비, 운영비, 기반설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등 지원받는다.

모두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전남도는 올해까지 6년 연속 배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모두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팜글래스산천농업조합법인(해남 특산물인 고구마와 쌀을 활용한 고구마발랭이와 현미초코샌드칩 등 건강 간식을 생산하며 해외 판로 개척

에도 성공했다. 이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더욱 경쟁력을 갖춘 전망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다. 전남도는 지역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공모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전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며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또한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 연합체의 공동 브랜드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모델 구축에 집중해 전국 최다 선정 결실을 봤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도, 구제역 확산 차단...특별 방역관리 강화

### 영암 소 생축 이동금지·우제류 축산차량 지역 지정제 도입

전남도는 24일부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검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